

LOGISIGHT

WEEKLY INTELLIGENCE

WEEKLY REGIONAL ANALYSIS · FAR EAST · CIS

극동·CIS 물류 현황 분석

보고기간 06/22~06/28

1. 러시아 새도플릿 단속 및 정제 능력 위기
2. BTK 철도 현대화로 중간희망 경쟁력 강화

LOGISIGHT 인텔리전스팀

2026-W26

종합

이번 주 극동 권역은 러시아의 에너지 인프라 위기와 중간회랑 경쟁력 강화라는 상반된 흐름이 두드러졌다. 러시아는 새 도플릿 나포와 정유공장 가동 중단으로 정제 능력 위기가 심화되면서 디젤 수출 전면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BTK 철도 조지아 구간 현대화로 중간회랑 연간 처리 용량이 5배 확대되어 역내 물류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차질은 글로벌 시장에 불확실성을 높이는 반면, 중간회랑 발전은 카스피해 주변국의 교역 증대와 물류 다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 새도플릿 단속 및 정제 능력 위기

러시아 새도플릿에 대한 프랑스의 나포 조치와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인한 모스크바 정유공장 장기 가동 중단이 러시아의 정제 능력 위기를 심화시키며, 디젤 수출 전면 금지 검토로 이어지고 있음.

프랑스 해군이 시칠리아 인근 해상에서 러시아 새도플릿 연계 유조선 '딜리버'호를 나포함. 이는 EU의 러시아 원유 제재 강제를 위한 조치로, 프랑스는 지난해 9월 이후 다섯 번째 새도플릿 나포 사례임. 러시아는 이를 '해적 행위'로 비난하며 양측 갈등이 격화됨.

러시아 내 정제 능력은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타격을 입음. 6월 16일과 18일 두 차례 공격으로 모스크바 정유공장의 증류 장치(53% 용량)와 Euro+ 설비(47% 용량)가 모두 손상되어 2027년까지 가동 중단이 예상됨. 이 공장은 2024년 휘발유 290만 톤, 디젤 320만 톤을 생산한 주요 시설임.

정제 능력 위기로 러시아 국내 연료 시장에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이 발생, 20여 개 지역에서 휘발유·디젤 구매 제한 조치가 시행됨. 이에 러시아 정부는 디젤 수출 전면 금지를 검토 중이며, 이미 휘발유·항공유 수출은 제한된 상태임.

새도플릿 단속과 정제 능력 위기는 러시아 원유 및 석유제품의 수출 경로와 물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단속 강화로 해상 운송 리스크가 확대되고, 수출 금지 시 글로벌 석유 시장에 공급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프랑스, 시칠리아 인근에서 러 새도플릿 유조선 나포...지난해 9월 이후 다섯 번째 사례
- 모스크바 정유공장,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증류-Euro+ 설비 모두 손상, 최소 6개월 가동 중단
- 해당 공장 2024년 기준 휘발유 290만 톤·디젤 320만 톤 생산, 러시아 휘발유 생산의 상당 부분 차지
- 러시아 정부, 디젤 수출 전면 금지 검토...이미 20여 개 지역에서 연료 구매 제한 시행
- 프랑스, 유효한 선적 증명 없는 선박에 처벌 두 배 강화...새도플릿 단속 지속

전망

러시아 정유공장 가동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국내 연료 공급 부족이 심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디젤 수출 금지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 변수로 작용할 것임. 또한 서방의 새도플릿 단속이 강화되면서 러시아 석유 수출 물류에 차질이 불가피함.

시사점

화주 — 러시아 석유제품 수출 제한 및 해상 운송 리스크 증가로 대체 공급선 확보 필요

포워드 — 러시아발 화물 취급 시 제재 회피 우려로 인한 규제 준수 비용과 리스크 확대

항만·선사 — 새도플릿 단속으로 러시아 석유 운반을 기피하는 경향이 강화되어 항만 물동량 변동 가능

BTK 철도 현대화로 중간회랑 경쟁력 강화

BTK 철도 조지아 구간 현대화로 연간 처리 용량이 100만톤에서 500만톤으로 5배 확대되어 중간회랑 (Trans-Caspian International Transport Route) 경쟁력이 크게 강화됨.

BTK 철도의 조지아 구간 현대화 공사가 완료되어 2024년 12월 2일 정식 재개통됨. 이번 공사로 184km 구간의 13개 철도 역, 55개 교량, 8개 변전소 등이 정비되었고 30.3km의 신규 선로가 부설됨. 그 결과 연간 화물 처리 용량이 기존 100만톤에서 500만톤으로 5배 증가함.

이번 용량 확대는 카스피해 국제운송경로(TITR), 즉 중간회랑의 핵심 구간 병목 해소에 기여함. BTK 철도는 2017년 개통 이후 아제르바이잔-조지아-터키를 연결하며 아시아-유럽 간 화물 운송의 대안 경로로 주목받아 왔으나 처리 용량 부족으로 물량 확대에 제약이 있었음.

카자흐스탄 정부는 이번 현대화가 자국의 환적 잠재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기대함. 중앙아시아의 화물이 BTK를 통해 카스피해를 건너 유럽 시장으로 진출하는 추가 경로를 제공하기 때문. 시장에서는 카자흐스탄발 유럽향 환적 물동량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음. 실제 물량 증가 속도는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BTK 철도의 정기 화물 서비스 안정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BTK 철도 조지아 구간 연간 용량: 100만톤 → 500만톤 (5배 증가)
- 현대화 공사 범위: 184km 구간, 13개 역, 55개 교량, 30.3km 신규 선로 부설
- BTK 총연장: 827km (아제르바이잔-조지아-터키)
- 중간회랑(TITR) 핵심 축으로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화물 유럽 환적 경로
- 카자흐스탄 정부, 환적 잠재력 강화 기대

전망

BTK 철도의 용량 확대는 중간회랑 전체 처리 속도와 물동량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됨.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와 서비스 안정화 여부가 실제 물량 증가 속도를 결정할 변수가 될 것임. 중앙아시아-유럽 간 물류 분산 효과가 가시화되면 북부 회랑 의존도가 일부 완화될 가능성이 있음.

시사점

화주 — 아시아-유럽 화물 운송 시 북부 회랑 대안으로 중간회랑 활용 가능성이 확대되었으며, 물류비 절감 및 리스크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포워드 — BTK 철도 용량 증대로 중간회랑 경로의 환적 서비스 상품 개발 기회가 증가하였으나, 정기 서비스 안정화까지 모니터링 필요.

항만·선사 — 카스피해 연안 항만의 환적 물동량 증가가 예상되어 관련 인프라 투자 및 서비스 증편을 고려해야 함.